

8강 의식 내재적 영역과 의식 초월적 영역

(1교시)

■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

※ 학습목표

틀로서의 습관을 이해한다

▲ 습관의 의미

습관은 이미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아 속에 습관들 즉, 틀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아의 기본을 형성해주며 들어오는 자각들을 다르게 해석해 내는 것이다. 습관(틀)이 다르면 다르게 해석되며 경험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

▲ 능동과 수동의 경계

흔히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을 구분하게 된다. 의지를 최대한 발동시키면 능동적인 것이고 습관에 따르면 수동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의지의 발동에 습관이 배어있다면? 의지 발동 속에 수동적 측면이 들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수 없다는 현대적 사유방식이 생겨나면서 주체개념이 약해지게 된다. 주체개념에는 의지, 자유성, 결단이 있는데 의지, 자유세계니 하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고 실제 삶에 들어가면 그 속에 엄청나게 강한 습관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 투명한 것과 불투명한 것

투명함에는 암암리에 지배욕구가 들어가 있다. 대상을 투명하게 만들어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회를 자연처럼 기계적인 법칙으로 보려고 하게 된다. 사회역사의 주체는 암암리에 근본적으로 불투명한 존재들인 인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사회역사 전체를 놓고서 그것을 투명하게만 보려하면 그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의 나사처럼 톱니바퀴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다.

▲ 불투명해지는 것

의식이 본래는 투명할지라도 실제 삶을 사는 과정에서 각종 사물들을 만나면서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개념을 가지고 규정하면 투명해진다. 그런데 그 개념을 벗어나는 측면이 있으면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의식적인 면에서 보면, 자기 앞에 자기가 서 있는(현전, presence, 現前)데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없는 것 속으로 들어가서 불투명해지게 된다.

8장 의식 내재적 영역과 의식 초월적 영역

(2교시)

■ 카오스로부터 나오는 코스모스

※ 학습목표

코스모스와 카오스, 의식 내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을 이해한다

▲ 죽음과 불투명

인간에게 가장 불투명한 것은 죽음이다. 모든 불투명함의 원천이 죽음인 것이다. 또한 불투명과 비슷한 말은 이질성(異質性), 타자성(他者性)이다. 가장 불투명한 것이 죽음이며, 절대적인 타자가 죽음인 것이다.

▲ 이성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들

본래부터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chaos이고, chaos는 genesis (생성)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에서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이데아, 형상들, 본질들이 있다. chaos는 이데아를 모방해서 운동한다. 그 과정에서 cosmos가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chaos적인 cosmos는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마르크스는 개인의 의식을 결정하는 사회적 존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chaos라고 할 수 있다. cosmos로는 해명되지 않는 여분인 chaos는 간극, 차이, 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율과 이성

자아내부에는 규칙적인 변화가 있다. 원래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ratio(비율)에서 나온 것이다. 비율의 선을 잘 따라가면 이성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비율을 따르지 않고 우발적인 광기, 충동을 쫓아간다면 반이성적인 삶이 될 것이다. 또한 논리학이나 수학같이 자아 바깥에 규칙적인 비율이 있다할지라도 자아내부에 규칙적인 비율이 없다면 이성적인 학문을 할 수 없다.

▲ 의식 내재적 영역과 의식 초월적 영역

의식 내재적인 영역과 의식 초월적인 영역 중, 초월적인 영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념적인 영역과 실재적인 영역이 그것이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념적인 것이다. 근대에 오면 신도 이념적인 영역이 되어버린다. 플라톤의 이데아도 이념적인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념적인 것이지만 초월적이라고도 말한다. 그 이유는 이데아가 의식 속에 있다고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념적인 영역이 언뜻 보기에는 의식과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실재적인 영역도 사실은 내재적인 영역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칸트이다. 원래 내재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초월적인 영역으로 바꾸어서 던졌으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는 철학이 선험 철학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다.

8강 의식 내재적 영역과 의식 초월적 영역

(3교시)

■ 의식 내재적 영역

※ 학습목표

후설과 칸트를 통해 인간의 의식을 이해한다

▲ 정신적인 영역과 전체모양

한 사물의 전체 모양은 하나인가? 전체모양은 바깥에 있는 가, 아니면 부분적인 모양들이 바깥에 있는가? 둘 중 어느 것이 더 초월적인가? 사물의 위치를 바꾸거나 각도를 바꾼다고 해서 전체 모양이 변하는가? 전체모양은 변하지 않으며, 이 변하지 않는 모양이 인간의 의식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과, 변하는 모습이 의식 바깥에 있다고 할 때, 인간은 전자의 경우를 선호한다.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모양을 정신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후설이다. 정신적으로 구성해서 전체모양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전체모양이 오히려 정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공간과 시간의 내재성

칸트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틀이라고 한다. 감성이라는 우리의 의식이 있는데, 이 감성의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다. 감성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의 감각들이 들어와서 감성을 거치게 되면 시간과 공간으로 처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바깥의 알 수 없는 자극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시공간적으로 처리되니까 시공간으로 보이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보고 있는 것들이 전부다 뇌에서 재생되어 나오는 것들이다. 따라서 칸트에게는 시, 공간이라는 것은 의식 내재적인 영역이다. 내재적인 것이 초월적인 것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것,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알고 보면 내재적인 영역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초월철학이다. 얼핏 보기에는 초월에 가까운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의식의 내재성, 의식의 주체성을 강조한다.